

사회

영산강 자전거도로 '암흑 길'

〈동림동 산동교~광산구 첨단종합운동장 구간〉

조명시설 아예 없어 범죄 발생 우려

잇단 민원 불구 광주시-익산청 '뒷짐'

주말인 지난 13일 저녁 8시께 영산강 자전거길(광주시 북구 동림동 산동교~광산구 첨단종합운동장)...

를 고려중이지만 예산문제와 함께 허가권이 있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허가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해가 기울고 밤이 깊어지면서 자전거 도로를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할 정도로 어두워졌다.

15일 광주시와 5개 자치구에 따르면 영산강 자전거 도로에 조명 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시민들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이따금 라이트를 켜 채 지나가는 라이더들이 눈에 띄기는 했지만 산책과 운동을 위해 나온 시민들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또 자전거 도로와 생태공원 일대에 길게 자란 잡풀을 제거해 달라는 요구도 빗발치고 있다.

이따금 라이트를 켜 채 지나가는 라이더들이 눈에 띄기는 했지만 산책과 운동을 위해 나온 시민들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또 자전거 도로와 생태공원 일대에 길게 자란 잡풀을 제거해 달라는 요구도 빗발치고 있다.

이따금 라이트를 켜 채 지나가는 라이더들이 눈에 띄기는 했지만 산책과 운동을 위해 나온 시민들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또 자전거 도로와 생태공원 일대에 길게 자란 잡풀을 제거해 달라는 요구도 빗발치고 있다.

이따금 라이트를 켜 채 지나가는 라이더들이 눈에 띄기는 했지만 산책과 운동을 위해 나온 시민들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또 자전거 도로와 생태공원 일대에 길게 자란 잡풀을 제거해 달라는 요구도 빗발치고 있다.

이따금 라이트를 켜 채 지나가는 라이더들이 눈에 띄기는 했지만 산책과 운동을 위해 나온 시민들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또 자전거 도로와 생태공원 일대에 길게 자란 잡풀을 제거해 달라는 요구도 빗발치고 있다.

이따금 라이트를 켜 채 지나가는 라이더들이 눈에 띄기는 했지만 산책과 운동을 위해 나온 시민들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또 자전거 도로와 생태공원 일대에 길게 자란 잡풀을 제거해 달라는 요구도 빗발치고 있다.

이따금 라이트를 켜 채 지나가는 라이더들이 눈에 띄기는 했지만 산책과 운동을 위해 나온 시민들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또 자전거 도로와 생태공원 일대에 길게 자란 잡풀을 제거해 달라는 요구도 빗발치고 있다.

이따금 라이트를 켜 채 지나가는 라이더들이 눈에 띄기는 했지만 산책과 운동을 위해 나온 시민들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또 자전거 도로와 생태공원 일대에 길게 자란 잡풀을 제거해 달라는 요구도 빗발치고 있다.

이따금 라이트를 켜 채 지나가는 라이더들이 눈에 띄기는 했지만 산책과 운동을 위해 나온 시민들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또 자전거 도로와 생태공원 일대에 길게 자란 잡풀을 제거해 달라는 요구도 빗발치고 있다.

이따금 라이트를 켜 채 지나가는 라이더들이 눈에 띄기는 했지만 산책과 운동을 위해 나온 시민들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또 자전거 도로와 생태공원 일대에 길게 자란 잡풀을 제거해 달라는 요구도 빗발치고 있다.

이따금 라이트를 켜 채 지나가는 라이더들이 눈에 띄기는 했지만 산책과 운동을 위해 나온 시민들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또 자전거 도로와 생태공원 일대에 길게 자란 잡풀을 제거해 달라는 요구도 빗발치고 있다.

이따금 라이트를 켜 채 지나가는 라이더들이 눈에 띄기는 했지만 산책과 운동을 위해 나온 시민들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또 자전거 도로와 생태공원 일대에 길게 자란 잡풀을 제거해 달라는 요구도 빗발치고 있다.

이따금 라이트를 켜 채 지나가는 라이더들이 눈에 띄기는 했지만 산책과 운동을 위해 나온 시민들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또 자전거 도로와 생태공원 일대에 길게 자란 잡풀을 제거해 달라는 요구도 빗발치고 있다.

이따금 라이트를 켜 채 지나가는 라이더들이 눈에 띄기는 했지만 산책과 운동을 위해 나온 시민들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또 자전거 도로와 생태공원 일대에 길게 자란 잡풀을 제거해 달라는 요구도 빗발치고 있다.

이따금 라이트를 켜 채 지나가는 라이더들이 눈에 띄기는 했지만 산책과 운동을 위해 나온 시민들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또 자전거 도로와 생태공원 일대에 길게 자란 잡풀을 제거해 달라는 요구도 빗발치고 있다.

이따금 라이트를 켜 채 지나가는 라이더들이 눈에 띄기는 했지만 산책과 운동을 위해 나온 시민들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또 자전거 도로와 생태공원 일대에 길게 자란 잡풀을 제거해 달라는 요구도 빗발치고 있다.

이따금 라이트를 켜 채 지나가는 라이더들이 눈에 띄기는 했지만 산책과 운동을 위해 나온 시민들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또 자전거 도로와 생태공원 일대에 길게 자란 잡풀을 제거해 달라는 요구도 빗발치고 있다.

이따금 라이트를 켜 채 지나가는 라이더들이 눈에 띄기는 했지만 산책과 운동을 위해 나온 시민들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또 자전거 도로와 생태공원 일대에 길게 자란 잡풀을 제거해 달라는 요구도 빗발치고 있다.

이따금 라이트를 켜 채 지나가는 라이더들이 눈에 띄기는 했지만 산책과 운동을 위해 나온 시민들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또 자전거 도로와 생태공원 일대에 길게 자란 잡풀을 제거해 달라는 요구도 빗발치고 있다.

이따금 라이트를 켜 채 지나가는 라이더들이 눈에 띄기는 했지만 산책과 운동을 위해 나온 시민들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또 자전거 도로와 생태공원 일대에 길게 자란 잡풀을 제거해 달라는 요구도 빗발치고 있다.

이따금 라이트를 켜 채 지나가는 라이더들이 눈에 띄기는 했지만 산책과 운동을 위해 나온 시민들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또 자전거 도로와 생태공원 일대에 길게 자란 잡풀을 제거해 달라는 요구도 빗발치고 있다.

이따금 라이트를 켜 채 지나가는 라이더들이 눈에 띄기는 했지만 산책과 운동을 위해 나온 시민들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또 자전거 도로와 생태공원 일대에 길게 자란 잡풀을 제거해 달라는 요구도 빗발치고 있다.

이따금 라이트를 켜 채 지나가는 라이더들이 눈에 띄기는 했지만 산책과 운동을 위해 나온 시민들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또 자전거 도로와 생태공원 일대에 길게 자란 잡풀을 제거해 달라는 요구도 빗발치고 있다.

이따금 라이트를 켜 채 지나가는 라이더들이 눈에 띄기는 했지만 산책과 운동을 위해 나온 시민들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또 자전거 도로와 생태공원 일대에 길게 자란 잡풀을 제거해 달라는 요구도 빗발치고 있다.

이따금 라이트를 켜 채 지나가는 라이더들이 눈에 띄기는 했지만 산책과 운동을 위해 나온 시민들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또 자전거 도로와 생태공원 일대에 길게 자란 잡풀을 제거해 달라는 요구도 빗발치고 있다.

이따금 라이트를 켜 채 지나가는 라이더들이 눈에 띄기는 했지만 산책과 운동을 위해 나온 시민들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또 자전거 도로와 생태공원 일대에 길게 자란 잡풀을 제거해 달라는 요구도 빗발치고 있다.

이따금 라이트를 켜 채 지나가는 라이더들이 눈에 띄기는 했지만 산책과 운동을 위해 나온 시민들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또 자전거 도로와 생태공원 일대에 길게 자란 잡풀을 제거해 달라는 요구도 빗발치고 있다.

광주시는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6월 영산강 자전거 도로가 완공된 이후 익산국토관리청으로부터 승촌보에서 첨단 용산교 32km 구간에 대한 관리를 인계받았다.

이후 광주시는 국토해양부로부터 22억원을 지원받아 지난여름부터 관리 구간에 대한 제초작업을 진행 중이다.

또 5개 자치구와 상의해 공터로 방치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이용인구가 많은 자전거 도로 주변에 조명 시설 설치를 고려 중이다.

조호경 광주시의회 의장은 최근 조명 시설 설치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달라 하는 요구도 빗발치고 있다.

조호경 광주시의회 의장은 최근 조명 시설 설치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달라 하는 요구도 빗발치고 있다.

조호경 광주시의회 의장은 최근 조명 시설 설치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달라 하는 요구도 빗발치고 있다.

조호경 광주시의회 의장은 최근 조명 시설 설치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달라 하는 요구도 빗발치고 있다.

조호경 광주시의회 의장은 최근 조명 시설 설치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달라 하는 요구도 빗발치고 있다.

조호경 광주시의회 의장은 최근 조명 시설 설치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달라 하는 요구도 빗발치고 있다.

조호경 광주시의회 의장은 최근 조명 시설 설치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달라 하는 요구도 빗발치고 있다.

조호경 광주시의회 의장은 최근 조명 시설 설치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달라 하는 요구도 빗발치고 있다.

조호경 광주시의회 의장은 최근 조명 시설 설치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달라 하는 요구도 빗발치고 있다.

조호경 광주시의회 의장은 최근 조명 시설 설치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달라 하는 요구도 빗발치고 있다.

조호경 광주시의회 의장은 최근 조명 시설 설치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달라 하는 요구도 빗발치고 있다.

조호경 광주시의회 의장은 최근 조명 시설 설치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달라 하는 요구도 빗발치고 있다.

조호경 광주시의회 의장은 최근 조명 시설 설치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달라 하는 요구도 빗발치고 있다.

조호경 광주시의회 의장은 최근 조명 시설 설치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달라 하는 요구도 빗발치고 있다.

조호경 광주시의회 의장은 최근 조명 시설 설치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달라 하는 요구도 빗발치고 있다.

조호경 광주시의회 의장은 최근 조명 시설 설치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달라 하는 요구도 빗발치고 있다.

조호경 광주시의회 의장은 최근 조명 시설 설치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달라 하는 요구도 빗발치고 있다.

조호경 광주시의회 의장은 최근 조명 시설 설치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달라 하는 요구도 빗발치고 있다.

조호경 광주시의회 의장은 최근 조명 시설 설치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달라 하는 요구도 빗발치고 있다.

조호경 광주시의회 의장은 최근 조명 시설 설치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달라 하는 요구도 빗발치고 있다.

조호경 광주시의회 의장은 최근 조명 시설 설치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달라 하는 요구도 빗발치고 있다.

조호경 광주시의회 의장은 최근 조명 시설 설치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달라 하는 요구도 빗발치고 있다.

조호경 광주시의회 의장은 최근 조명 시설 설치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달라 하는 요구도 빗발치고 있다.

조호경 광주시의회 의장은 최근 조명 시설 설치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달라 하는 요구도 빗발치고 있다.

조호경 광주시의회 의장은 최근 조명 시설 설치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달라 하는 요구도 빗발치고 있다.

조호경 광주시의회 의장은 최근 조명 시설 설치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달라 하는 요구도 빗발치고 있다.

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익산청은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홍수기 영산강 수위가 높아지면 안전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익산청은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홍수기 영산강 수위가 높아지면 안전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익산청은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홍수기 영산강 수위가 높아지면 안전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익산청은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홍수기 영산강 수위가 높아지면 안전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익산청은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홍수기 영산강 수위가 높아지면 안전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익산청은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홍수기 영산강 수위가 높아지면 안전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익산청은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홍수기 영산강 수위가 높아지면 안전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익산청은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홍수기 영산강 수위가 높아지면 안전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익산청은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홍수기 영산강 수위가 높아지면 안전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익산청은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홍수기 영산강 수위가 높아지면 안전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익산청은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홍수기 영산강 수위가 높아지면 안전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익산청은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홍수기 영산강 수위가 높아지면 안전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익산청은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홍수기 영산강 수위가 높아지면 안전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익산청은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홍수기 영산강 수위가 높아지면 안전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익산청은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홍수기 영산강 수위가 높아지면 안전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익산청은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홍수기 영산강 수위가 높아지면 안전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익산청은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홍수기 영산강 수위가 높아지면 안전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익산청은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홍수기 영산강 수위가 높아지면 안전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익산청은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홍수기 영산강 수위가 높아지면 안전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익산청은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홍수기 영산강 수위가 높아지면 안전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익산청은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홍수기 영산강 수위가 높아지면 안전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익산청은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홍수기 영산강 수위가 높아지면 안전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익산청은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홍수기 영산강 수위가 높아지면 안전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익산청은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홍수기 영산강 수위가 높아지면 안전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익산청은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홍수기 영산강 수위가 높아지면 안전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익산청은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홍수기 영산강 수위가 높아지면 안전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익산청은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홍수기 영산강 수위가 높아지면 안전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익산청은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홍수기 영산강 수위가 높아지면 안전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익산청은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홍수기 영산강 수위가 높아지면 안전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익산청은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홍수기 영산강 수위가 높아지면 안전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익산청은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홍수기 영산강 수위가 높아지면 안전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교육비 증가율

광주·전남 '최고'

이용섭 의원 국감자료

광주와 전남지역 사교육비 증가율이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이용섭(광주 광산구) 의원은 15일 통계청 자료를 인용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16개 시·도 중 2009년 대비 2011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제주도로 9.4%를 기록했고 이어 광주 3.3%, 전남 2.5% 순이었다"고 밝혔다.

또 2011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를 과목별로 분석한 결과, 영어가 8만1000원으로 전체 사교육비의 33.8%를 차지했고, 지난 2007년에 비해 16% 증가했다.

수학은 7만원으로 전체 사교육비의 29.2%를 차지했으며 2007년 대비 18.6% 증가했다.

반면 국어(-15.8%) 사회·과학(-23.1%), 제2외국어·한문·컴퓨터(-50.0%), 논술(-14.3%) 등은 2007년에 비해 줄었다.

초·중·고등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07년 22만2000원에서 2011년 24만원으로 8.1% 증가했다.

중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07년 23만4000원에서 2011년 26만2000원으로 12% 상승했고, 일반고등학교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07년 24만원에서 2011년 25만9000원으로 7.9% 늘었다.

운영기자 penfoot@kwangju.co.kr

오늘 날씨, 맑은 뒤 흐림, 고기압 가장자리 들면서 오후에 구름 많겠다. 광주 11/24°C, 목포 13/22°C, 여수 15/22°C, 나주 8/24°C, 완도 13/24°C, 구례 8/24°C, 강진 9/24°C, 해남 9/24°C, 장흥 9/24°C, 순천 8/23°C, 영광 9/23°C, 진도 11/22°C, 전주 10/24°C, 군산 9/22°C, 남원 6/24°C, 옥산도 16/20°C

재가동 영광원전 발전출력 낮춰

변압기 가스농도 증가로...원전측 "고장 등급 아니다"

11일 만에 발전을 재개한 영광원전 5호기(가압 경수로형 100만kW급)가 이틀만인 15일 자동 갑발(발전 출력)을 낮추는 조치에 들어갔다.

안정 상태에 접어들었다. 영광원전 5호기는 지난 13일 발전을 재개, 14일 최대 출력에 도달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5호기의 갑발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고·고장 등급에 해당하지 않고, 원전의 안전과 방사능 누출과는 무관하다"며 "정확한 원인을 파악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일 영광원전 5호기(가압 경수로형 100만kW급)와 신고리원전 2호기( )가 이례적으로 동시에 고장을 일으키면서 가동이 중단됐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50분께 영광원전 5호기가 주 변압기 내의 가스농도가 증가해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87%까지 갑발했다.

갑발 이후 변압기의 가스농도는

감발 이후 변압기의 가스농도는

광주교육감, 비리 직원 구명 탄원서 논란

학부모연합 "형평성 상실 있을 수 없는 일" 주장

장휘국 광주교육감이 교사 특채 비리를 주도한 시교육청 인사과 직원들을 위해 법원에 탄원서를 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행위 근절을 위해 많은 교육계 인사들이 고소·고발했고 중징계로 교육계를 떠나기까지 했다"며 "그러나 이보다 훨씬 가벼운 사건이었는데도 교육감이 선처를 부탁한다는 탄원서를 냈다는 보도를 접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광주·전남 교육을 생각하는 학부모연합'은 15일 성명서를 내고 "성적 조작 채용비리 같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에 선처를 부탁하는 탄원서를 냈다는 것은 교육감의 이중성을 보는 명백한 일이고 형평성을 상실